

중국 상하이에 국제창의디자인학원 문 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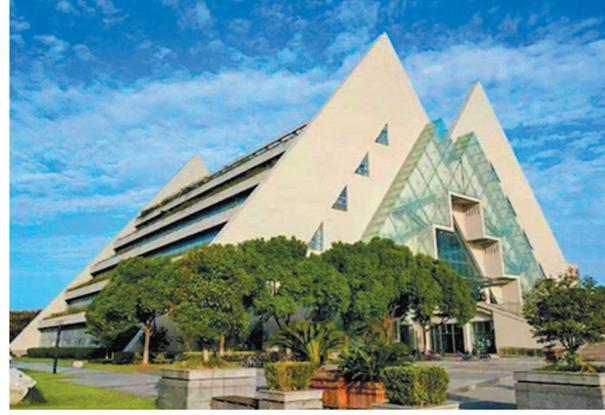
중국 대학과 단과대 설립



우리 대학 전경

우리 대학이 중국 대학과 합작해 단과대를 설립하고 중국에서 선발한 학생을 상대로 디자인 관련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중의합작운영기구는 중국 내 최초의 디자인분야 중의합작운영기구로 본 기구의 명칭은 상해공정기술대학 국제창의디자인학원이다.

이후 상해시교육위원회 전문가 평가 및 교육부 전문가 심의 및 여러 차례의 수정 보완을 거쳐 최근 정식으로 승인을 받았다.
중국과 외국 대학의 개별 학과가 학생과 교수를 교환하는 '중의합작운영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은 국내에 여럿 있지만, 3개 학과 이상이 모인 단과대를 중국에서 운영하는 대학은 국내에 거의 없다.
우리 대학은 상해공정기술대학 국제창의디자인학원에 디지털미디어예술전공의 학부과정으로 2022년 9월부터 매년 50명, 예술디자인 석사전공 중 전시회 및 공간환경 디자인분야로 매년 20명의 중국학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중국 상해공정기술대학 전경

전공에서 운영한다.
또한 ▲상해공정기술대학과 디지털미디어예술전공 학부과정 ▲중남경정법대학과 시각전달디자인전공 ▲영화전공 등 학부과정 2개 전공 ▲안휘이공대학과는 메카트로닉스공학의 학부과정을 운영중이다.
디자인 분야 중의합작운영기구의 첫 사례다.
상하이공정기술대학이 2019년 동서대와 공동에 제안하면서 합작운영기구 설립 협의가 이뤄졌다.
현재 중국 교육부 인가로 운영 중인 중국 우한 한중뉴미디어대학에 이은 또 하나의 성과다.
장재국 총장은 "우리 대학은 상해공정기술대학과 기존 운영했던 중의합작프로그램 방식에서 중의합작운영기구로 승격돼 설립 승인을 받았다"라며 "이를 통해 중국 현지에서의 동서대 영향력을 제고하고 우수한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또한 "본교가 강점인 디자인과 미디어 디지털 콘텐츠 관련 전공이 중의합작운영기구로 승격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상하이공정기술대학은 1978년 개교한 공립대학으로 상하이시에 위치해 62개 전공 2만2000여 명이 재학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앞서 중국 교육부 인가를 받고 중국 우한에서 한중뉴미디어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디자인에 관심이 많은 중국 유학생을 많이 모집하게 돼 매년 다양한 인재들을 발굴해 가고 있다. 중국유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최혜미 기자
qpfhszlk1542@gmail.com

교류지원사업 운영기관 선정
한국인·외국인 학생으로 교류프로그램 진행



정소년리더 교류지원사업 결과보고회를 마친 자리에서 기념촬영하는 모습

장재국 총장은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하는 '2022년 국제 청소년리더 교류 지원 사업' 운영 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우리 대학은 올해 초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하는 '2021년 국제 청소년리더 교류지원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우리 대학은 'Asia Global Hub Busan : 함께하는 2030부산월드 엑스포'라는 주제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한국인·외국인 학생 각 30명씩 총 60명이 참여한다.
국제 청소년리더 교류 지원 사업은 다국적 대학생들 간 교류활동을 지원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체류 유학생의 한국 문화와 역사,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켜 국가 간 우호를 증진시키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작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올리는 프로젝트 조별 활동부터 최소 인원인 4명으로 구성됐다.
총 14일이 '디자인과 창의적 사고 학습'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상상과 발전' '부산 영화로 여가기하다'의 프로젝트 키워드

로 소규모 탐방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학생들의 프로젝트 발표 심사를 맡은 환경호 국제처장은 "직접 대면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조별 프로젝트에 열정적으로 참가했고, 이를 통해 협업과 소통으로 훌륭한 프로젝트 결과를 도출해준 학생들이 매우 자랑스럽다"라며 격려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내년에 확정될 2030 부산월드 엑스포 유치에 위한 다국적 청소년들의 각 국가별 맞춤형 해외 홍보방안을 수립해 실천할 예정이다.
우리 대학은 부산지역 소속 대학으로서 부산시 현안 과제인 2030 부산월드 엑스포 유치를 위한 다양한 연계 협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호 국제처장은 "문화체험, 지역 산업 현장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국적 학생들 간 교류와 탐외를 강화하고, 특히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2022년 국제 청소년리더 교류 지원 사업도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혜미 기자
qpfhszlk1542@gmail.com

2022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선정

'사랑에 대해 : 과학으로 배우는 성과 젠더'



박혜령 교수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선정한 '2022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에서 1개 강좌가 신규 선정됐으며 부산, 울산, 경남, 제주지역 대학 중 선정된 대학은 우리 대학이 유일하다.
K-MOOC(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로 대학, 기관 등의 우수한 온라인 강좌를 일반인들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번 2022년에는 K-MOOC 강좌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으로 파급력 있고 학습자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강좌를 개발·제공하고, 학습자가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습 서비스를 보다 강화한다.
우리 대학은 개별강좌 자율분야에서 박혜령 교수의 '사랑에 대하여 : 과학으로 배우는 성과 젠더' 강좌가 선정됐다.

15주차(주당 3시간) 강좌로 구성돼 있다.
그리고 개별강좌 자율분야에서 김경연 교수의 '실전 타이포그래피' 강좌가 15주차(주당 3시간)로 구성돼 있다.
'실전 타이포그래피' 강좌는 정보를 글로 전달함에 있어 타이포그래피의 규칙을 익히고 다양한 시각커뮤니케이션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타이포그래피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따라서 글자와 글을 다루는 타이포그래피는 이제 전문 디자이너의 영역일 뿐만 아니라 일반교양으로 활용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사랑에 대하여 : 과학으로 배우는 성과 젠더' 강좌는 성과 젠더의 과학적 의미를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사진출처 - K-MOOC 홈페이지

이해하고 진화론과 자연선택의 관점에서 인류의 번식을 학습함으로써 젠더 갈등이 인류 생존전략에 부정적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김경연 교수의 '그림으로 읽는 영미문학', '애니메이션 영화의 혼성적 연출특성' 2개 강좌가 교육부, 올해 20개 대학 23개 개별강좌에 선정됐다.
한편 우리 대학은 교육부가 선정한 '2018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에서 '그림으로 읽는 영미문학' 강좌와 '애니메이션 영화의 혼성적 연출특성' 등 2개 강좌가 선정됐다.
'그림으로 읽는 영미문학'은 영미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인간의 보편적인 주제(사랑, 정체성, 고독, 자유) 탐색을 통해 인간 삶의 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영어 원서의 모미를 즐길 수 있도록 개별 시의 주제와 관련된 삽화를 그려 넣어 학습의 수월성을 높였다. 또한 작품 속에 등장하는 사회 문화 역사적 주요 화두를 제시하고 삽화와 함께 쉽게 이해하게 했다.
또 '애니메이션 영화의 혼성적 연출특성'은 애니메이션과 대중문화, 다 장르, 예술사조에 작품 등과 혼성적 연출에 대해 분석,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론 예술적, 대중 문화적 이해를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부는 다양한 학습자에게 필요한 게이밍 강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대학 단위 공모방식에서 강좌 단위 공모방식으로 변경하고, 개별강좌와 묶음강좌로 구분 선정했다.
최혜미 기자
qpfhszlk1542@gmail.com

웨이브파크, 발전기금 1억 전달

최삼섭 대표 "학생 부담없이 학업 진념하길"



대원플러스그룹 회장이 장재국 총장에게 발전기금 1억원을 전달하는 사진

대원플러스그룹 계열사 ㈜웨이브파크가 발전기금 1억원을 기부했다.
웨이브파크는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인공 사벨 파크다.
대원플러스그룹은 부산시를 비롯 국내에서 차별화된 건설과 관광개발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대표 기업이다.
대원플러스그룹의 최삼섭 회장은 "개발은 곧 창조와도 같다"는 가치관 하에 사회에 공헌하는 완벽한 창조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뛰어난 기획력과 풍부한 경험, 그리고 전문성을 수반하고 있다.
㈜웨이브파크를 계열사로 둔 대원플러스그룹은 2012년 당시 80층의 아시아 최고 주거 건물인 '해운대 마리나시티 두산위브더제니스'와 2017년 국내 최초의 해상케이블카인 '송도해상케이블카' 조성 등 랜드마크를 개발하며 이름을 알렸다.
그리고 부산 항포구 내 대원플러스건설이 경기도 시흥시에 조성한 아시아 최초 인공사벨 스포츠레저 휴양시설로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한다.
우리 대학 총장실에서 열린 발전기금 전달식에는 ▲장재국 총장 ▲최삼섭 대표이

사 ▲김원석 이사 ▲김정선 총괄부총장 ▲남호수 교학부총장 ▲이종의 대학원장 ▲환경호 국제처장 ▲송강영 학생취업지원처장 ▲정도운 산학협력단장이 참석했다.
최삼섭 대원플러스그룹 회장은 "올해 30주년을 맞는 학생들이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하기를 바라며 학생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자라날 것으로 믿는다"라고 밝혔다.
장재국 총장은 "기대와 응원에 감사하며 발전기금으로 후학양성과 대학발전을 위해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부산시와 약 1조 규모의 '황령산 종합개발투자협약'을 맺고, 황령산 봉수대 유적조성과 2008년 부도된 박지현 구 스노우캐슬의 도심복합휴양시설 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테마파크와 관광레저시설 분야에 특화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4월 11일에는 글로벌 게임 인재 양성 및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게임계의 하버드 '디지컬 공과대학'과 부산시, 대원플러스그룹이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최혜미 기자
qpfhszlk1542@gmail.com

광고계의 오스카상을 휩쓸다!

클리오 어워즈에서 4개 상 석권



▶수상 학생 및 교수

우리 대학 학생들이 광고계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세계 3대 광고제, 국제 광고제 클리오 어워즈(CLIO Awards)에서 수상의 영광을 거머쥐었다. 전 세계 대학생 수상 작품 총 27개 중 19개가 한국 학생들이 작품이고, 은상 2팀, 동상 1팀, Shortlist 1팀으로 총 네 개의 작품을 동서대에서 석권했다.

클리오 어워즈는 1959년 처음 개최된 이후, 매년 약 65개국에서 19,000편 이상의 작품이 출품되고 있는 대규모 광고제다. 칸 국제 광고제 및 뉴욕 페스티벌과 함께 국제광고협회(IAA)가 선정한 세계 3대 광고제로 인정받고 있다. 프로 광고인 및 학생의 구분 없이 오직 창의성만을 기준으로 작품을 평가하고 수상작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상식은 4월 28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됐으며, 시상식 진행 상황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이번에 수상한 작품은 우리 대학 융합교과목인 '아이디어 선용합실습' 교과목(광고홍보학과 류도상 교수, 소프트웨어학과 문미경 교수) 지도로 4팀이 수상하게 됐다.

광고제를 빛낸 수상자와 수상 학생으로

▲Experience/Activation 부문에서는 은상을 수상한 'Smell Belt(정유성, 이홍, 하은별, 강동호, 방송연)' ▲Product/Innovation 부문에서는 은상을 수상한 'Smart Label Package(이영준, 박준혁, 이서영, 하은별, 조동하)' ▲Medium/Innovation 부문에서 동상을 수상한 'Fake Boss(김대일, 김유진, 강동호, 임해정)' ▲Medium/Corporate 부문에서 'Shortlist Touching Badge(이채희, 안채원, 이찬영, 나무빈)'이 있다.

'Smelly Belt'는 노스페이스에서 조난 사고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 인간보다 후각이 뛰어난 구조견을 보내지만 55%는 발견되지 못하고 사망함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아이디어다. 실종자를 위한 냄새나는 벨트로, 벨트의 버클 안에 특유의 냄새를 풍기는 물체가 담겨져 있어 조난 시 활용이 가능하다. 스켈크가 분비하는 티올이라는 액체로 만들어 한 번 버클을 열면 한 달 동안 냄새가 지속되고, 1km 밖까지 냄새가 풍겨진다.

'Smart Label Package'는 유일하게 한국 기업이 매일유업에서 제안한 아이디어다. WHO에 따르면 매년 2억여 명의 어린이가 상한 우유를 먹고 복통을 호소한다고 한다. 우리 대학 학생들을 원인을 유추 패키지에서 찾았다. 작게 표시된 유통기한보다 중앙에 크게 표시해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로고를 온도 변화 인크로 새겨 유통기한이 지나면 아프다는 뜻의 '!!!'만 보이게끔 패키지를 디자인했다.

'Fake Boss'는 휴고 보스에서 제안한 아이디어로, 코로나19로 재택 근무가 늘었지만, 그림에도 정장을 필요로 하는 직장인을 위한 아이디어다. 휴고 보스와 줌의 협업으로, 얼굴을 바꾸는 딥페이크와 다르게 Fake Boss는 사용자의 신체 사이즈를 인식해 버추얼 정장을 입혀 주는 기능이다. 실제로 구입하고 싶으면 하단의 휴고 보스 사이트를 클릭해 구매로 이어질 수 있게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아래로는 수상 학생 일부의 수상 소감이다. 이후 학생은 '탐원들과 학기를 넘어 방학 중에도 교수님과 같이 피드백 받으며 작업하는 등 결과를 제작에 많은 시간이 소요였는데, 그 시간이 아깝지 않게 결과적으로 수상하게 돼 너무 기쁩니다'라고 말했다.

박준혁 학생은 "작년 레드닷 어워드의



▶클리오 어워즈 트로피

Best of the Best 수상으로 독일 수상식에 다녀온 지 엇그제 같은데, 세계 최고 광고제에서 또 하나의 큰 상을 받게 돼 너무 기쁩니다. 특별히 지도해 주신 문미경 교수님, 류도상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김유진 학생은 "클리오 광고제에서 수상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해 감회가 남다르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준비한 결과물이 이렇게 큰 규모의 광고제에서 수상하게 돼 뿌듯합니다. 함께 작업했던 탐원들, 마지막까지 꼼꼼히 지도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채희 학생은 "클리오 국제 광고제를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대해 깊게 고민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 경험을 갖게 됐다"고 생각한다. 교수님, 조원들과 함께 몇 달간 고생하며 만들어 낸 결과와 정말 뿌듯하고, 앞으로도 모두를 위한 솔루션이 보편화돼 모두가 좋은 세상을 누리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김규리 기자
Olarbft1@gmail.com

소상공인을 위한 지능 기부

소프트웨어학과와 쇼핑몰 개발



▶회의 중인 모습

우리 대학 소프트웨어학과(책임 교수 박승민)가 ㈜글드브릿지와 함께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개별 소유형 웹·앱 쇼핑몰 개발 서비스'사업에 선정됐다.

이들은 지역 중소기업, 대학, 시민이 함께하는 '2022년도 시민참여형 서비스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의 일부로, 서비스 분야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서비스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산시와 부산산업과학혁신원(BISTEP)이 지역 서비스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부산 서비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만든 사업이다.

부산시는 지난 3월 사업 대상과제 공모를 진행해 총 컨소시엄 6곳 중 2곳을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과제는 ▲산업재해 데이터 기반 직업성 질병 판단 매칭 서비스(주관 기관 유니스노우랩인, 참여 기관 더웰·동서대)와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개별 소유형 웹·앱 쇼핑몰 개발 서비스(주관 기관 글드브릿지, 참여 기관 동서대)다. 우리 대학은 최종 선정된 2곳 모두 참여 기관으로 뽑혔다.

이번에 선정된 컨소시엄은 일반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사용자 그룹을 운영해 사용자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반영한 서비스를 연구·개발할 계획이다.

사용자 그룹은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단계부터 서비스 시제품 테스트 과정까지 참여하게 된다. 사용자 그룹 중 일반 시민은 제품과 서비스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로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의견 제시, 시제품

테스트, 최종 성과 교류회 참여 가능한 일반 시민 5~7인으로 구성된다. 전문가는 연구개발 과정에 조언을 할 수 있는 산업계 종사자 2~3인으로 구성된다.

부산시는 "각각의 컨소시엄이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한 직업성 질병 판정 서비스와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개별 소유형 쇼핑몰 웹·앱 개발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점에서 부산 서비스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는 데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우리 대학 소프트웨어학과 안지현, 조수빈, 장재일 학생은 "이번 과제가 사업에 선정돼 사회 발전의 의미로 나아가 뜻깊고, 좋은 취지에 걸맞게 저희 아이디어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순기능의 역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수님과 함께 연구개발하겠다"라며 사업 선정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연구 개발에 참여하는 소프트웨어학과 학생들은 AI심화트랙 융합연계전공(AI공학, 빅데이터)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개발한 인공지능의 '지능'을 기부해 개별 소유형 웹·앱 쇼핑몰을 개발할 예정이다.

우리 대학 SW중심대학사업단(단장 문미경)은 AI심화트랙 및 SW융합연계전공의 운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작년에 정부 지원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URP) 7개 과제 최다 선정 쾌거에 이어, 올해에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관련 세부 및 지자체 R&D 사업 선정에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고 있다.

김규리 기자
Olarbft1@gmail.com

공감과 지지로 수상의 기쁨까지

전주국제영화제 영광의 대상 수상



▶정순 스틸컷

▶사진출처 - 전주국제영화제

우리 대학 졸업생 정지혜 감독의 <정순>에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부문 대상의 영광이 돌아왔다. 대상을 받은 정지혜 감독의 '정순'은 부산영화위원회의 2019년도 '부산 신진 작가 영화 기획개발 멘토링 지원 사업'과 2021년도 '부산지역 영화·영상 콘텐츠 후반 작업 기술 지원 사업' 지원자에 선정됐던 작품이다.

올해 영화제 공모는 국제 경쟁 491편, 한국경쟁, 한국단편경쟁 등 1330편으로 총 1821편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이 중 57개 국 217편이 본선에 진출해 경쟁했다.

한국경쟁 부문의 대상에는 <정순>의 정지혜 감독, 배우상에 <사랑의 고고학>의 영실 역 옥자연과 <윤니가 사라졌다>에서 순이 역을 맡은 오민에 배우, CGV 아트하우스 창작지원상에는 <비밀의 언덕>이지는 감독, CGV 아트하우스 배급지원상과 왓치가 주목한 장편에 <경아의 딸>김정은 감독, 심사위원 특별언급에 <사랑의 고고학>이원민이 수상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화제가 주춤하고, 전

주국제영화제가 정상화되기까지 걸린 시간만 3년이다. 3년 만에 정상화된 2022 전주국제영화제는 온라인 상영이 주목이었던 최근 몇 년과는 달리, 레드 카펫 및 오프라인 행사가 정상화됐다.

주목할 만한 국내의 작품이 다수 상영됐는데, 특히 올해는 여성 감독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국제경쟁, 한국경쟁, 한국단편 경쟁, 불면의 밤 색션 상영작 모두 절반 이상이 여성 감독의 작품이었다. 그중에서도 한국경쟁 부문은 상영작 9편 중 7편이 여성 감독 영화였다. 심사를 담당할 문석 프로그래머는 "선정작 9편 중 7편이 여성 감독의 작품으로, 여성 감독의 강세가 계속되는 중이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져 상영영역에서도 여성 감독의 약진이 이뤄질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순은 기획부터 제작, 후반 작업까지 부산에서 마친 부산 영화다. 불법 촬영물 유통 사건을 모티프로 한 이 영화는 사건 당사자인 정순이 수모를 감당하면서도 여성의 결단을 힘 있게 보여 주는 내용을 담



▶수상 소감을 말하는 정지혜 감독

▶사진출처 - 포토뉴스

고 있다. 이번 영화제에서 디지털 성폭력 을 다룬 영화는 <경아의 딸>과 <정순> 두 작품인데, <경아의 딸>의 경우 모녀 관계에 초점을, <정순>의 경우 중년을 피해자로 설명했다.

<정순>의 경우 이전까지 나왔던 디지털 성폭력 영화와 다르게 피해자가 젊은 여성인 정순이다. 식품공장 베테랑 직원인 정순은 일터에 새로 나타난 남자와 연애를 시작한다. 연애 사실이 알려지자 공장 사내로는 수군거리는데, 소문은 두 사람에게 다르게 작용한다. 남자는 평소 허리를 조심하게 되지만 정순은 걱정 없이 누워있다. 정순은 뒷담화의 대상이 된다. 짧은 감독의 행사가 생기를 잃었는데, 전주국제영화제가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후 첫 영화제라 활기가 넘쳤다. 좌석 띄어 앉기 없이 관객분들과 함께 영화를 볼 수 있어서 좋았다"

김규리 기자
Olarbft1@gmail.com

활기찬 대학 생활의 부활!

코로나19 이후 첫 체육대회



▶배드민턴 결승전

지난 5월 13일 체육대회가 열렸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 두기 및 방역 지침이 해제된 이후 첫 공식적인 대면 행사다. 5월 11일 수요일부터 예산 경기를 치러 5월 13일 금요일에 본 체육대회가 진행됐다.

올해 체육대회는 주 종목인 ▲탁구 ▲피구 ▲풋살 ▲배드민턴과 부종목인 ▲짜키치기 ▲탈춤 ▲탈춤 ▲탈춤 ▲탈춤 등 12개 종목이 2018년 체육대회와는 사뭇 다른 새로운 종목들로 구성됐다. 당시 있었던 씨름, 족구, 줄다리기, 계주 등 대신 탁구, 제기차기, 볼링 등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종목으로 대체됐다. 주 종목은 풋살 예선전을 제외하고는 민식스포츠센터 3층에서, 부종목은 스포츠클럽관에서 진행됐다.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체육대회를 즐기고 응원할 수 있게끔 인스타그램 게시물 및 스토리 해시태그 이벤트를 준비했다. 가장 많은 응원글을 올려 준 두 개의 학부에 500,000원을 시상했다. 해당 응원 상금은 디지털콘텐츠학과와 보건 의료 계열에서 가지고 가게 됐다.

주 종목 중 영령의 탁구 우승은 컴퓨터공학부, 피구 우승은 레포츠학과, 풋살 우승은 보건 의료 계열, 배드민턴 우승은 경찰행정학과에서 차지했다. 아쉽게 우승을 놓친 탁구 2등으로는 레포츠학과, 피

구 2등은 경찰행정학과, 풋살 2등은 건축토목공학부, 배드민턴 2등은 레포츠학과가 차지했다. 3등의 경우 탁구는 원광대학교, 피구는 보건 의료 계열, 풋살은 사회복지학과, 배드민턴은 글로벌경영학부가 차지하게 됐다. 또 부종목 종합 우승팀은 경찰행정학과가, 종합 2등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원광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 건축토목공학부, International College가 차지했다. 가장 많은 상을 차지한 이들은 총 3개의 상을 수상한 건축토목공학부와 레포츠학과다.

총학생회는 이번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 언급했다. 코로나19 경각심이 줄어들고 있지만, 안전한 안전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활동으로 구성하지 못한 것이 아쉽고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쓴다 보니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즐거워하는 모습을 원동력으로 삼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행사들을 많이 준비할 계획이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라며 이번 체육대회를 준비해 온 소감을 밝혔다.

김규리 기자
Olarbft1@gmail.com

영화와 졸업생 이태동 감독, 칸 핑크카펫에 서다!

졸업생이 제작에 참여한 웹드라마 <종종소>가 칸에서 소개되다



▶<종종소>의 주역들(오른쪽에서 세번째 이태동 감독)



▶졸업생 이태동 감독

우리 대학 졸업생 이태동 감독이 제작한 '왓차'의 오리지널 드라마 <종종소>가 프랑스 '2022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이하 칸 시리즈)'의 한국 포커스 섹션에 공식 초청됐다.

이태동 감독은 임권택영화예술대학의 영화와 졸업생이자, 현재 임권택영화예술대학 영화과의 교수로써 재직 중이다.

또한, 현지 촬영감독이자 D테일스튜디오 대표로서 활동 중이다. 영화 <승리호>, <삼진그룹 영어어휘반>, <반도> 등에 참여했다.

칸 시리즈 핑크카펫 행진은 칸 시리즈에 출품된 콘텐츠의 배우 및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국내 웹드라마 첫 공식 초청이다.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은 전 세계 드라마 시리즈 콘텐츠 대상 국제 행사로 올해 5회째를 맞는다. 경쟁 부문과 단편 경쟁 부문 각 10개, 비경쟁 부문에 4개 작품이 선정되며 <종종소>는 올해 비경쟁 일반 상업 한국 포커스 부문에 초청됐다.

칸 시리즈 핑크카펫에는 이태동 감독과 여행 유튜버 '빠니보틀', '왓차' 오리지널로 제작된 <종종소>시즌 4~5 감독과 작가, 배우를 그리고 박태훈 왓차 대표가 참석했다.

또한, 상영회도 열렸다. 상영회는 배우들과 제작진의 무대인사를 시작으로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

<종종소>는 29살 사회초년생 조충범(남현우)이 중소기업 '정승 네트워크'에 취업한 뒤 겪게 되는 일을 그린 웹드라마로, 대한민국 중소기업 현실을 고명한 상황 설정과 디테일한 현실 고증으로 녹여낸 많은 직장인과 청년 공감을 이끌어내며 대회 공개와 동시에 수백만 이상 조회 수를 기록한 콘텐츠다.

유튜버 '빠니보틀'이 연출하고 'D테일스튜디오'가 제작한 저예산 숏폼 웹드라마로 시작해 '왓차'가 투자·제작에 참여한 <종종소>는 다큐멘터리적 묘사와 개성 있는 캐릭터들로 많은 청년들과 직장인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신입사원 연봉을 임의로 깎고, 불법 사무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척박한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명한 상황 설정과 디테일한 현실 고증으로 녹여낸 '극사실주의 드라마'라는 호평을 받았다.

또한, 1화가 업로드 된 지 2주 만에 조회수 100만을 기록하며 화제작으로 떠올랐다. 시즌1~3이 끝나자, IP의 확장성에 주목한 국내 OTT '왓차'가 IP를 구매했다.

국제신문에서 진행한 졸업생 이태동의

인터뷰에 따르면, "OTT 숏폼 시장의 선두기업이 될 겁니다. 우리 같은 지역(부산) 제작사가 성공할 수 있는 틈새시장이다"라며,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 알게 된 부산 출신 유튜버로부터 인기 여행 유튜버 빠니보틀을 소개받았다. 그가 중소기업 이야기를 웹드라마로 만들고 싶다고 하길래 시나리오 제작을 돕기로 한 것이 제작 참여로 이어졌다"라고 설명했다.

10분 내외의 저예산 웹드라마 5편이 일주일 만에 만들어졌고, 우리 대학의 연기와 출신의 진아진 졸업생(이영영 역) 김태영 졸업생(이마나 역)과 더불어, 부산예술대를 졸업한 남현우(조충범 역) 등 부산 대학 출신 배우가 대거 참여했다.

이태동 졸업생은 "성공한 시즌 여러 편을 만들어 IP를 파는 부산식 영상 제작의 성공 신호를 만들 것"이라며 "지역 영상기관도 강소 제작사를 발굴해 지원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KNN 인물포커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종종소> 이후로 계속 새로운 드라마를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유튜버 진영진 님과 '없는 영화 시리즈'라고 그래서 관련 영화를 리뷰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영화 리뷰라고 하면 두 시

간짜리 영화를 15분으로 압축해서 이제 리뷰를 하시면서 15분 만에 그 영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콘텐츠들이 유튜브에 많이 있는데, 저희는 반대로 15분짜리 리뷰 영상을 만들면서 마치 두 시간짜리 있는 영화를 마치 있는 것처럼 저허가 없는 영화라는 단편 영화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형태의 드라마도 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종종소> 이후에 창의적으로 공무원과 사회복지무원들의 조금 그런 갈등과 그런 에피소드를 그린 웹드라마를 지금 이미 제작이 촬영이 됐고요, 지금 열심히 편집해서 5월 말 즈음에는 공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며 다음 작품을 예고했다.

한편, <종종소>는 온라인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 '왓차'가 제작 투자한 드라마로, '왓차' 방영 콘텐츠 상위 5%, 유튜버 코리아 히어로 콘텐츠로 선정되는 등 잇따라 성공을 거두고 있다.

또한, 지난 '2021 뉴미디어 콘텐츠상' 시상식에서 웹드라마 부문에 '이 구역의 미친 X', '머느라기', '키스요괴' 등 유력 작품들과 함께 후보에 올라 최종 작품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바 있다.

조수연 기자
noeyushc@gmail.com

■ 학부장 인터뷰 -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부장 김미진 교수

실무형 창의 인재 양성을 추구하다



김미진 교수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게임학과 김미진 교수입니다. 디지털콘텐츠학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Q. 소프트웨어융합대학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은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인공지능응용학과 ▲정보보안학과 ▲게임학과 ▲영상애니메이션학과 ▲웹툰학과로 총 7개의 학과가 소속되어 있는 단과대학입니다. 학문적으로 공학, 예술, 인문 수업이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으며 프로젝트 기반 수업을 통해 각 학과가 추구하는 우수한 포트폴리오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Q. 타 학부 또는 학과와 비교해 차별된 것이 있을까요?

A. 디지털콘텐츠학부는 기술과 예술을 융합하는 학문을 추구하며,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교육을 적극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스킬 함양은 물론 팀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XCCT Labs라는 목적형 교육공간에서 관련 기업들과 산학공동 프로젝트 기회를 만들고, 학생·교수·기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 학부의 진로와 전망은 어떤가요?

A. 디지털콘텐츠산업에 해당하는 게임, 애니메이션, 웹툰 등 지식정보산업이 학생들의 취업 분야입니다. 게임은 ▲게임 기획자 ▲게임 프로그래머 ▲게임 그래픽디자이너가 있고,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창작자 ▲3D 모델러 ▲VFx 엔지니어가 있고, 웹툰은 ▲웹툰 스토리 작가 ▲웹툰 PD ▲웹툰

일러스트레이터가 있습니다. 디지털콘텐츠산업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 홈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수요 증가와 실감콘텐츠 소비가 가속화되며 5년간 9.9%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콘텐츠 관련 직무 분야의 인력 수요는 꾸준히 늘어가는 형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조건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전문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Q. 학생들은 주로 어떤 것을 배우나요?

A. 우선 게임·애니메이션·웹툰이라는 콘텐츠를 창작하고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이론과 제작 기술을 배웁니다. 각 콘텐츠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지만 기획·제작·서비스라는 3단계의 공통 개발과정에서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을 위해 실무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수업을 합니다. 디지털콘텐츠 분야는 기술적 변화가 타 분야보다 빠른 편이고 다양한 산업들과의 융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 빠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두 개의 융합 연계전공(AI 콘텐츠, XR 콘텐츠)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기반 수업의 미래 변화에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학생들이 여러 방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떤 활동이 있을까요?

A. 방직형 산학공동수업과 특화된 연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우수한 포트폴리오를 갖추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외 많은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사례가 해마다 나오고 있고 졸업작품의 질적 우수성으로 국내외 유명 기업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A. 2018년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용어가 나온 후 급속하게 정보통신기술이 인간의 삶에 융합되고 있으며 그 속도는 빨라지고 체계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은 미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박상욱 수습기자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중소기업 계약학과' 설립

2학기, 석사과정 클라우드융합학과 20명 모집 예정



▶중소기업 계약학과 협약식

우리 대학과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뉴밀레니얼 글로벌뷰에서 '중소기업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학과 협약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학위과정을 설치하고, 근로자(학생)-중소기업-대학 간 3자 협약을 운영하는 계약학과를 통해 중소기업 우수인재 양성 및 근로자(학생)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산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대학에 학위과정을 개설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학위취득을 지원하는 '선취업-후진학' 방식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전국 47개의 주관대학과 69개의 계약학과 및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학과운영비 및 등록금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신기

술·신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해 미래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학과를 선정했다. 분야별로는 ▲미래차 분야 4개 ▲지역 특화산업 분야 4개 ▲탄소중립 분야 3개 ▲학위연계 과정 6개 학과이며, 학위별로 ▲전문사과정 2개 ▲학사과정 7개 ▲석사과정 3개 ▲박사과정 5개다. 이 중 우리 대학은 특화산업 분야를 대표로 주관할 대학에 선정됐다.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의 선정을 통해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클라우드융합학과'를 신설하고 올해 2학기부터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20명을 대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최원영 부산중기청장은 "고급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계약학과라는 교육시스템을 통해 자체적으로 전문 인력을 육성·확보함으로써 기업이

당면한 애로사항들을 해결해 나가고 나아가 활발한 산학관 협력을 통해 동서대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선례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재국 총장은 "우리 대학 특성화 분야인 컴퓨터공학과는 미래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의 핵심역량을 양성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산의 미래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현 근무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재교육형) 또는 중소기업 채용예정자여야 한다.

한편, 본 사업은 올해 8월 말까지 교육과정 설계, 신입생 모집 등 학과 개설 준비를 완료하고, 9월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총

2년간의 학위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지원 학생 요건은 3가지 유형(▲재교육형 ▲재교육형 동시채용 ▲채용조건형)에 따라 다른데, 우리 대학은 '재교육형'과 '재교육형 동시채용' 유형에 해당한다.

'재교육형'은 해당 기업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여야 한다. 그리고 '재교육형 동시채용'은 입학 당시 해당 기업에 재직 경력이 없어야 하지만, 학기개시일을 기준으로 해당 기업에 취업해야 한다.

한편, 클라우드융합학과는 주말과 야간 과정으로 운영되며, 신입생들에게 2년간 등록금 65%를 지원한다. 우리 대학은 현재 사전 준비 단계에 있으며, 7월 중순에 모집 공고문을 일반 대학원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조수연 기자
noeyushc@gmail.com

패션의 나라 이탈리아에서 꿈을 펼치자!

이탈리아 디자인 명문대학 도무스아카데미 협약체결



▶이태리 도무스아카데미

우리 대학이 이탈리아 최고의 디자인대학인 '이태리 도무스아카데미'와 협약을 체결했다.

우리 대학의 디자인대학은 GDS(Global Design Society)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도무스아카데미와 공동연구, 초청특별강연, 학생 교류 등 다양한 교류협력을 진행해왔다. 재학생들은 해외 현지 유명 디자인 회사 취업 및 박사과정 진학 등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GDS(Global Design Society)란, 우리 대학의 디자인대학이 특성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축해온 '인 1' 글로벌 프로젝트다. 각 루트의 연계 없이 모든 학생이 자유롭게 참여해 융합·소통하며, 다양한 경험과 가치를 발전하고 국제적 감각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우수한 공동연구 및 교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도무스아카데미측의 제안으로 우리 대학과 도무스아카데미는 협력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것을 합의했다.

구체적인 협력 내용으로 대학원 과정 교수 교환, 학생 교환 프로그램 활성화 및 동

시대 우수 졸업생의 도무스아카데미 대학원 과정 입학에 연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대학과 도무스아카데미는 공동연구 및 교수 교환제도의 협력 사업을 통해 학술연구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 해 나갈 계획이며, 우리 대학의 졸업생들이 현지대학 대학원 진학 시, 특별장학금을 포함한 각종 혜택을 제공 받게 된다.

도무스아카데미는 이탈리아 밀라노에 위치한 세계 최고 수준의 우수디자인 대학으로 해외 협력대학을 선정하는데 있어 까다로운 절차를 내부적으로 거치는데, 국내에서는 우리 대학과 동의대학교가 유일한 협력 파트너 대학이다.

정재국 총장은 "지난 10년간 이어온 이탈리아 현지 명문대학인 도무스아카데미와 교류 협력의 결과로 이러한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본교 디자인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다시 한번 더 확신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다. 우리 학생들이 유럽으로 진출하여 디자인 전문인력으로 커나가기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조수연 기자
noeyushc@gmail.com

책 속의 풍경 - 침묵의 봄

봄과 함께 온 침묵



- 책 제목 : 침묵의 봄
- 책 저자 : 레이철 카슨
- 출판사 : 예리코

우리에게 불어오는 이미지는 뭐가? 수많은 생명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이미지를 떠올리거나 학교에 가기 시작하는 학생들의 모습, 양상한 나뭇가지들이 푸른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 등을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의 제목은 침묵의 봄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봄은 침묵이 아닌 활기차고 역동적인 계절이다. 이 책은 제목에서부터 아름다운 느낌보다는 불길한 느낌을 준다.

1962년에 발간된 <침묵의 봄>은 인간이 살충제 같은 화학약품을 대량으로 뿌리는 바람에 새와 벌과 나비와 같은 것들이 다 죽어서 조용해진 봄을 표현한 다.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화학약품과 살충제에 대한 피해는 이 책이 시초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람이 자연에 맞추지 않고 과학기술을 통해 자연을 사람에게 알맞은 것으로 맞추던 시대였고, 그 행동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사람에게 되돌아왔다. 사람이 감당해야 할 피

해보다는 눈앞에 놓인 보기 싫은 것을 제거하는 것이 더 우선시 되던 시기였다. 순간의 편리함을 위해 돌아온 끔찍한 피해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사람의 편리로 인해 생긴 큰 문제가 있다. 강에서 낚시를 즐기던 낚시꾼들이 강의 주위에 있는 각다귀가 거슬러 지속해서 민원을 넣었다. 그 민원으로 인해 각다귀 박멸을 시도했고, 살충제를 호수에 살포했다. 살포할 때 박멸로 인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7,000만분의 1로 희석 후 살포했고, 그 결과로 각다귀가 박멸됐다. 그리고 효과를 본 뒤 강도를 높여 2차 살포를 진행했고, 최종 박멸을 위해 3차 살포를 시행하는데 그때부터 각다귀가 아닌 논병아리들이 죽기 시작했다.

논병아리들의 죽음으로 호수에 살포한 살충제를 검출해달라니 호수는 0.02ppm밖에 검출되지 않았다. 그리고 호수의 플랑크톤을 살펴보니 5ppm이 검출됐다. 물 풀을 먹은 물고기들에서는 40~300ppm, 물고기를 잡아먹는 육식성 어류의 경우 2,500ppm이 검출됐다. 마지막으로 육식성 어류를 잡아먹던 논병아리를 조사했더니, 16,000ppm이 검출됐다. 논병아리를 잡아먹는 인간의 신체에는 얼마나 많은 살충제가 쌓였을까? 각다귀의 모습을 볼 때 마치 여간이 순간의 편리를 위해 뿌린 살충제는 모든 것에 영향을 줬다. 이 사건으로 우리는 자연이 구성하는 요소들은 그 어떤 것도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자연은 자연으로 존재할 때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벌레 몇 마리를 죽이는 것은 식량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자연의 다양성을 해치는 행위다. 벌레 몇 마리를 죽이기 위해 살포된

살충제는 벌레들을 전멸시켰지만, 벌레들의 생명력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다. 유전적 선택 과정에서 곤충들은 화학물질에 대한 막강한 저항력을 보유하게 됐다. 인간이 뿌려대는 화학물질로 인해 자연이 조절하고 있던 개체수의 붕괴가 일어나 갑작스러운 먹이사슬의 붕괴와 함께 곤충의 개체수도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우리 인간도 자연의 한 부분에 속한다. 과학기술이 특이점에 도달하고 우리가 기후를 조절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면 자연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우리의 기술력은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연의 균형 일부분을 해치는 일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 가끔 저지르는 심각한 일들은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돌아온다.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뉴욕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듯이, 인공적으로 만든 화학약품은 그 자체로 위협적이지만 자연에서는 더 큰 위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박준 시인의 <광장>에서 '사람이 새와 함께 사는 법은 새를 새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풀과 나무를 가꾸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우리는 인간과 자연의 문제가 아닌 다른 인간, 다른 국가, 내가 속하지 않은 다른 집단을 내가 원하는 틀에 맞추기보다는 어떻게든 공존하려는 노력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우리에게 맞추려고 강제로 하기 보다는 있는 그대로 공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신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좋아하고, 그것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채워 줘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다.

주태연 수습기자

이달의 영화 - 윤희에게

어떤 사랑을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 영화 제목 : 윤희에게
- 영화 감독 : 임대형

영화 <윤희에게>는 사랑의 다양한 모양이란 질문에 답을 내놓은 영화라고 할 수 있다. 임대형 감독이 감독 및 각본을 모두 맡은 두 번째 장편영화다.

주연배우로는 각각 한국과 일본에서 굵직한 내공을 보이고 있는 김희애 배우와 나가쿠라 유코 배우가 함께했다. 그 외에도 영화로는 첫 작품인 김소혜 배우와 오랫동안 주목받고 있는 성유빈 배우의 활약을 이 영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희에게>는 한국과 일본의 겨울 배경에서 그들만의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장면 하나하나 섬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 영화의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여인이 외로워 보이는 '윤희' 앞으로 한 통의 편지를 던져 보게 된다. 유감스럽게도 윤희의 편지를 먼저 읽은 건 딸 '새봄'이다.

편지의 내용을 숨긴 채 발신인이 살고 있는 곳으로 새봄은 윤희에게 여행을 제안하고, 윤희는 비밀스러웠던 첫사랑의 기억으로 가슴이 뛰는 순간을 맞이한다.

새봄과 함께 여행을 떠난 윤희는 끝없는

이 눈이 내리는 그곳에서 첫사랑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기대를 품으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어쩌면 뻔한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오랜만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영화를 봤다. 바쁜 현대 사회에서 2시간짜리 영화 하나도 마음잡고 보기 힘들다. 그래서 이 영화는 마법 같았다.

6월, 1년의 중간 그리고 여름의 시작이다. 약간의 더위를 느끼며 차갑지만 따스하게 다가오는 겨울 영화 <윤희에게>를 봤다. 임대형 감독은 영화 <윤희에게>를 두고 이런 말을 했다. '자기 자신보다 타인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없는 용감한 일', 이 말이 참 와닿았다.

사랑에 이유 없듯이 내가 이 영화에 어떠한 이유도 붙일 수가 없다. 그저 사랑하게 됐다.

이 영화가 더 신선하게 다가왔던 부분은 얼마 윤희가 이 영화를 이끄는 듯하지만, 모든 전개부터 윤희와 새봄의 결말까지 새봄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이다. 보통은 엄마가 딸을 이끄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만큼은 아니다. 딸이 엄마를 이끈다. 그리고 엄마는 그런 딸의 속내를 알면서도 순수히 따라간다.

어쩌면 엄마 '윤희'에게 딸 '새봄'은 혹독한 겨울이면서도 새로운 봄이 아닐까? 엄마와 딸이 서서히 가까워지는 그런 부분들을 찾으면서 보는 것이 나름 소중한 재미이다.

영화 <윤희에게>는 단순히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배경인 작품으로 공감 가는 몇몇 부분들이 영화 속에 분명히 있었다. 불편한 진실들이지만 그런 진실들이 감독의 각본과 어우러져 심

도 있게 볼 수 있었다.

내가 사랑하게 된 이 영화의 한 장면 중 유독 마음에 든 장면이 있다. 바로 '새봄'이 담배를 들고 있는 '윤희'를 찍으면서 내뿜는 딸이 나의 마음을 울렸다. 자식은 아름다운 것만 찍기 때문에 인물 사진은 찍지 않는다는 과거의 새봄이 했던 말과 상반되기 때문이다.

많은 장면들이 기억에 남아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지만 유독 이 장면이 나에게 더 잊지 못할 장면으로 남았다. 이 영화를 보게 되는 사람들이 그랬으면 한다.

<윤희에게>는 분명히 동성에 영화다. 이 영화를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걸 사랑이 아니며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그 어디에도 안전하고, 완벽한 사랑은 없다.

이 영화를 보는 내내 모든 인물에게 애뜻함을 느꼈다. 이 영화 속 인물들과 혹은 공감하는 모든 이들이 다정함을 잃지 않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질 수 있지 않을까.

사랑의 다양한 모양을 섬세하게 잘 표현한 영화 <윤희에게>, 한 사람이 자신보다 타인을 더 사랑하는 일이 이토록 매력적이고, 처연한 건지 알고 싶다면 <윤희에게>를 보라고 권하고 싶다.

<윤희에게>를 보고 난 후에는 임대형 감독의 말처럼 나 자신보다 타인을 더 사랑했던 적이 있었는지 고민해 봐도 좋을 것 같다.

언젠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한다고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

이나영 수습기자

거리두기 해제! 다시시작하는 여름페스티벌 돌아온 여름축제 알아보기



▶ 부산 워터밤 축제 ▶ 사진출처 - 네이버블로그-상



▶ 부산 록 페스티벌 ▶ 사진출처 - 네이버비 나무위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이 몇 년간 축제를 즐기지 못했다.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 해제가 되면서 음식점과 술집 등 영업제한이 풀리고 거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몇 명씩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일상 속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여가생활을 놓친 채 살아간다. 이번 거리두기 해제를 통해 다시 한번 시작하는 여름 페스티벌이 찾아온다.

더위를 날려 줄 페스티벌에 대해 차례대로 알아보자.

워터밤

'워터밤'은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등의 전국 주요 도시를 투어하며 음악, 예능, 물놀이 결합된 페스티벌이다.

트렌디한 힙합 뮤지션부터 해외 EDM DJ, 매력적인 K-POP 가수까지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즐길 수 있다. 관객과 아티스트가 서로 팀을 나눠 공연 도중에 물싸움을 즐기기도 하고, 사방으로 물 폭탄이 터지기도 한다.

워터밤이 개최되는 곳 한편에는 수영장이 마련되어 있는데 알록달록한 튜블 타고 이벤트를 참여할 수도 있고, 처음 보는 사람들과 물총을 쏘는 '워터 파이팅'을

즐길 수도 있다.

만약 워터 파이팅을 즐기다가 지쳐다면 'BEACH LOUNGE'를 방문해 보는 것도 좋다.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릴렉스 존과 인생 샷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 이국적인 조형물들이 준비돼 있다. BEACH LOUNGE에는 고급, 방수팩 등의 아이템을 판매하는 공식 아이템 숏도 위치해 있다.

올여름, 도심 한가운데서 신나는 피서를 경험하고 싶다면 워터밤에 참여해 보자. 쏟아지는 물줄기가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 줄 것이다.

부산 국제 록 페스티벌

20년째를 맞이한 국내 최장수 페스티벌이다.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지산 록 페스티벌과 함께 담당하게 한국의 3대 록 페스티벌을 이끄는 대표적인 공연이다.

연속적으로 이어오는 페스티벌 중에는 1999년 시작된 찰리 사운드 페스티벌도 있지만, 2001년까지는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이라는 곳에서 열렸다는 점에서 부산 록 페스티벌이 가장 길다.

부산 록 페스티벌이 2022년 현재 우리나라 록 페스티벌 중 가장 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록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많은 관객들이 참여해 국내의 할 것 없이 많은 밴드들이 참여한다.

부산 국제 힙합 페스티벌

부산광역시에서 매년 8월 개최되는 부산 바다 축제의 국제 행사 중 하나인 힙합 페스티벌이다.

MZ세대에게 자유롭고 즉흥적인 형태의 패션, 음악, 댄스, 노래, 의식을 지배하는 문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힙합 문화의 대중화와 건전한 청소년 댄스 문화 육성을 위해 기획됐다.

2008년 처음으로 시작된 부산 국제 힙합 페스티벌은 이후 매년 8월에 개최되고 있으며 국내외 다양한 국가들의 여러 팀들이 참가하고 있다.

행사 한 달 전 예선전을 거친 국내외 팀이 참가해 스트리트 댄스 경연 대회, 비보이 및 힙합 공연 등을 펼친다. 스트리트 댄스 경연 대회는 삼 대 삼 프리 스타일 배틀 방식으로 진행된다.

결승전에 진출한 네 팀에게는 우승 500만 원, 준우승 300만 원, 3위와 4위 각 100만 원의 상금과 상패가 주어진다. 축하 공연으로는 행사 시작 전에 비보이, 가수

축제·공연 소식



소프라노 김소라 귀국 독창회

- 기간 : 2022. 06. 10. (금)
- 장소 :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 주최 : 핀란드
- 입장료 : 전석 2만원



SELECT SHOP (심센치|소수빈) 콘서트-부산

- 기간 : 2022. 06. 11. (토)
- 장소 :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 주최 : 부산문화회관
- 입장료 : VIP석 121,000원 / R석 99,000원



김희정 서혜리 듀오 리사이틀

- 기간 : 2022. 06. 12. (일)
- 장소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주최 : 부산문화회관
- 입장료 : 전석초대



부산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여정"

- 기간 : 2022. 06. 17. (금)
- 장소 : 부산문화회관
- 주최 : 부산시립예술포럼
- 입장료 : S석 15,000원 / A석 10,000원 / B석 5,000원



카르미나 부라나

- 기간 : 2022. 06. 23. (목)~2022. 06. 24. (금)
- 장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주최 : 부산문화회관
- 입장료 :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 A석 10,000원



K-핸드메이드 & 일러스트레이션페어

- 기간 : 2022. 06. 24. (금)~2022. 06. 26. (일)
- 장소 :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2층
- 주최 : 한국국제전시
- 입장료 : 5,000원



해설이 있는 오페라여행(갈라콘서트)

- 기간 : 2022. 06. 21. (화)
- 장소 :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 주최 : SJ엔터테인먼트
- 입장료 : 전석 1만원

자료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금호타이어 최혜미 기자 qphslzk1542@gmail.com

이번 달은 기차여행 어떠세요?

철도의 날 맞이, 기차로 떠나보자



▶경화역

▶사진출처 - 코레일



▶관광벨트열차타고 떠나는 기차여행!

▶사진출처 - 레츠코레일



▶철도의 날

▶사진출처 - 대한민국 외교부 서포터스 공식 블로그 'MOFA랑'

철도의 날은 우리의 주요 교통수단 중 하나인 철도에 대한 의의를 높이고 관련 종사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한국 최초의 철도국이 6월 28일에 창설한 것을 기념해 지정됐다.

이날은 대전역의 철도 합동행사에서 기념식을 치르고 100만km 무사고 운전을 달성한 기관사들에게 홍조근정훈장을 수여하고 철도 관련 종사원들과 철도공무원, 정년퇴직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각종 행사를 벌이기도 한다.

사실 철도의 날은 9월 18일에서 6월 28일로 개정된 적이 있었다. 본래 국내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이 철도 운영을 시작한 1899년 9월 18일을 기념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경인선이 일제의 침략 전제라는 견해로 인해 개정이 불가피해졌고 이에 2018년 국무회의를 통해 6월 28일이 철도의 날이 됐다.

내일로 두 번째 이야기

보통 여행을 할 때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요즘 유튜브가 많이 오른 이유로 인해 자가용으로 여행을 다니기 부담스러운 시대가 됐다. 그렇다고 고속버스나 비행기로 여행하는 것도 저렴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코레일에서는 3~7일 일정의 긴 여행 혹은 여러 지역을 지나는 여행 패키지를 기획하였고 그것이 바로 '내일로' 패키지다. 이미 2000년대 또는 2010년대에 대학생 또는 청춘들의 대표적인 여행 패키지로 추억이 남기는 기차여행에 기여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내일로' 두 번째 이야기>로 바뀌게 되면서 전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연령이 확대되고 연중 운영으로 바뀌게 돼 편의성을 더했다.

또한, 유효기간 내에 3일을 직접 선택해 패스를 사용하는 '선택 3일권'이 신설돼 우리들의 선택에 대한 폭을 넓혀주고 KTX와 일반열차의 좌석을 무료로 지정할 수 있게 돼 편의성이 향상됐다.

대표적인 혜택으로는 KTX 편도 2회 이

용만 써도 본인 뽑기가 가능해진 것이 가장 큰 매력 포인트로 작용하여 청년들 특히 20대에게 가장 큰 이점이 됐다.

관광열차로 간편하게 떠나는 여행

만약 자유여행이 부담스럽고 정해진 루트를 따라가고 싶다면 관광열차 패키지를 이용하면 된다.

이러한 관광열차 패키지는 '동해 산타열차'와 '서해 금빛 열차', '백두대간 협곡열차', '남도해양 열차' 등이 있지만 코로나19 및 차량 정비 등의 사유로 인해 일부 관광열차의 운영을 중지하고 있어 현재 운영 중인 관광열차들을 소개한다.

동·서해를 지나다

'동해 산타 열차'는 동해의 바다 경관을 즐기며, 백두대간을 가로질러 분천 산타마 을까지 가는 코스로, 푸르고 시원한 동해 바다를 느껴면서 강원도에서 경상북도까지 가게 된다.

동해 산타 열차를 이용하면서 정동진,

태백, 영주, 봉화 그리고 경북 무성마을까지 가는 여행상품들도 포함돼 있으니 참고하면 좋겠다.

'서해 금빛 열차'는 천혜의 해양생태와 찬란한 역사·문화의 보고인 서해안의 풍요로운 관광지를 찾아 떠나는 여행 코스다.

해가 지거나 뜨는 석양이 너무나 아름다운 서해안을 보면서 용산에서 수원, 아산, 대전, 군산, 익산을 지나가는 열차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기차 안에 온돌 마루랑 세족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군산 근대문화거리, 전주 한옥마을, 태안틀림축제 등이 있는 여행상품들이 포함돼 있으니 참고하면 좋겠다.

이처럼 동해, 서해로 나누어서 해안선을 따라 여행을 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부산을 살면서 바다를 볼 기회가 많지만 동해바다가 아닌 서해바다를 느끼고 풍성한 먹거리와 많은 볼거리들이 있는 서해안을 따라 여행하는 '서해 금빛 열차'를 이용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남해안을 지나다

'남도해양 열차'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풍성한 남도의 문화를 이어주는 행복하고 편안한 'SLOW 기차여행'이라는 내용을 품고 있으며 서울에서 천안, 대전, 전주, 남원을 거쳐 여수로 가는 '전라선'이 있고, 부산에서 창원, 전주, 하동, 밀포, 보성을 지나 광주로 도착하는 '경전선'이 있다.

이번 열차의 가장 큰 장점은 동·서해를 지나가는 열차는 코스가 1가지였다는 것과 비교했을 때, 다양한 경로를 정할 수 있다는 것과 부산에서 출발할 수 있는 코스가 있다는 것이 눈길을 끌었다. 리아스식 해안인 구불구불한 남해안을 따라 남도의 넘치는 인심이 가득한 음식들을 먹으며 가보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올해 여름은 기차여행?

지금까지 기차여행을 저렴한 가격에 하는 방법과 다양한 패키지가 포함된 관광열

차로 풍부한 경험을 느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생각보다 국내에 기차를 통해 전국 곳곳의 철도들을 따라 주변의 자연경관들을 보면서 사색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여행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은 미지의 땅으로 출발하는 순간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을 벗어나 새로운 것들을 느끼고 체험하는 여행을 떠나 보기를 추천한다.

아름다운 자연을 가로질러 바다와 산, 강을 전부 느낄 수 있는 기차를 타고 떠나 보는 것은 어떨까?

올 여름은 해안선을 따라 지나가는 기차 안에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면서 경치를 돌아보는 기차여행을 떠나는 것을 추천하며 철도의 날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자료출처 : 레츠 코레일 네이버 블로그 - 협업은 트레블링 박상욱 승승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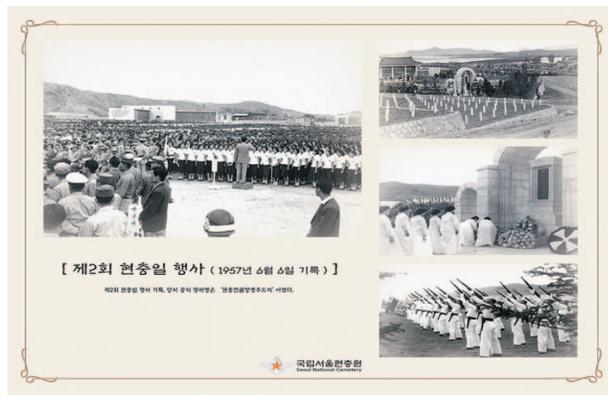
호국영령을 기리며

우리나라의 현충일과 세계의 현충일에 대해



▶현충일 국립묘지 풍경

▶사진 출처 - 국가기록원



▶제2회 현충일 행사

▶사진 출처 - 국립서울현충원



▶국기게양법

국가 존재하는 데에는 상당한 전란을 거치게 되어 있고, 모든 국가는 그 전란에서 희생된 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한국의 현충일과 세계의 현충일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의 현충일

1950년 6월 25일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4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사망하고 백만 명에 달하는 일반 시민이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었다. 1960년, 휴전 성립 3년 후 정부는 매년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여 공휴일로 하고 기념행사를 가지도록 하였다.

현충기념일은 통상적으로 현충일로 불리다가 1975년 12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현충일로 공식적으로 개정됐다. 1982년 5월 법정기념일이 되었으며 올해로 67주년을 맞았다.

현충일에는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하며 조기 게양을 한다.

현충일 추념식

전 국민이 오전 10시에 사이렌 소리에 맞춰 1분간 경건히 묵념을 하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

각 자치단체에서도 추념식이 진행되며, 국립서울현충원 현충원 앞 광장에서는 제경 독립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 헌법기관 관의 주요 인사, 보훈가족, 시민·학생 등 각계 대표가 참석하는 현충일 추념식이 진행된다.

작년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는 서울현충원, 대전현충원, 유엔기념공원을 삼원 연결하여 생증계로 추모식이 진행됐다.

조기 게양

조기는 현충일 당일에만 게양한다.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세로길이) 만큼 내려 단다.

하지만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 게양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

대한 내려 게양한다. 또한, 가로기와 차량기는 국경일 등 경사스러운 날에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게양하고 있으므로, 현충일에는 게양하지 않는다.

가정에서는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단다.

만약 심한 비·바람(약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약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단다.

태극기는 각급 지자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만약 태극기가 오염·훼손되었다면 버리지 말고 각급 지자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가수거함에 넣으면 된다.

미국의 현충일(Memorial day)

매년 5월의 마지막 월요일로 'Memorial day(메모리얼 데이)'라고 불린다. 과거

미국의 남북전쟁 후인 1868년 5월 30일, 당시 북군의 장군이었던 존 로건이 전사한 병사들의 무덤에 꽃을 장식하도록 포고령을 내린 것에서 유래한다. 꽃을 장식한다는 의미에서 메모리얼 데이를 '데코레이션(decoration) 데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 메모리얼 데이는 전쟁으로 사망한 병사들을 기념하는 날이 됐고, 1971년부터 5월 마지막 월요일로 정됐다.

매년 메모리얼 데이가 되면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추념식을 갖고, 오후 3시에 전 국민이 1분간 추모하는 시간을 갖는다. 온 국민이 거리로 나와 전몰장병을 위한 꽃을 뿌리기도 하며 연휴 기간 동안 피크닉을 가기도 한다.

영국의 현충일(Poppy day)

매년 11월 11일은 'Poppy day(포피 데이)'로 영국의 현충일이다. 영국의 현충일이 11월인 이유는 1918년 11월 11시를 1차 세계대전의 종전 시점으로 보고,

전쟁의 비극을 잊지 말자는 의미다. 그런데 왜 포피 데이일까? 'Poppy'는 양귀비라는 뜻으로 전쟁터에서 양귀비꽃이 피어 출몰하는 모습이 마치 전사자들의 피 같아 포피 데이라고 불리게 됐다.

후주의 현충일(Anzac day)

매년 4월 25일은 후주의 현충일인 'Anzac day(앤잭데이)'이다. 'Anzac'은 1차 세계대전에 참가한 호주·뉴질랜드 연합군의 약자로, 앤잭데이는 이들이 1915년 4월 25일 오스만투르크(현 터키) 갈리폴리 상륙작전을 수행한 것을 기리는 날이다.

1차 대전 중이었던 1915년 4월 25일, 호주와 뉴질랜드 연합군은 6만 명의 군사를 파병해 독일 편에 선 오스만투르크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기 위한 상륙작전에 돌입했다. 그러나 호주-뉴질랜드 연합군은 오스만투르크에 밀려 패배했고, 호주군 8,700여 명과 뉴질랜드군 2,700여 명 등 총 1만 5,000여 명이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를 맞았다.

한편, 앤잭데이 초기에는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싸운 용사를 기렸지만 현재는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들을 기리는 날로 확대돼 시행하고 있다.

호주-뉴질랜드 양국 정부는 매년 4월 25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각종 추모행사를 열고 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가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고, 친구들과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호국영령들께 다 같이 감사하며 묵념하자. 나와 나라를 빛내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게 현충일을 맞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애국 아닐까?

자료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현충일 네이버 지식백과-메모리얼 데이 네이버 지식백과-앤잭데이 행정안전부-오는 6월 6일은 제67회 현충일입니다 티스토리 블로그-주연광대생 최지혜 승승기자



얼마든지 외라 여름아

안재원 (광고홍보학과·3)

더워지기 시작한다면 웃장을 갈아 껴야 한다는 뜻이다. 갈아지는 옷장처럼 내 마음도 새롭게 갈아졌으면 하는 마음도 함께다. 작년 이 계절에 그 옷을 입었던 나를 떠올리며 몇 년 동안 입지 않은 옷들은 버리기도 하고, 추억에 젖어 놓지 못해도 그 냄새만을 기억하며 끝내 놓아주는 이별도 하게 된다. 더위와 함께 저 모든 것들을 마주하는 여름이다. 뜨거운 더위에 맞설 앓고 시원한 옷들은 여름에만 존재할 수밖에 없다. 기온과 체온이 비슷해지는 그 느낌이 반팔, 반바지를 입어야겠다는 다짐하게 한다.

이렇게 여름은 추운 겨울보다 몸을 느슨하게 만들고 감정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계절이라고 생각한다. 추울 땐 찬다고 하고 말지만 더우면 괜히 신경이 곤두서는 느낌이다. 왜 그러지는 모르겠으나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르겠다. 특히 중고등학생 때는 여름이 그렇게 싫었다. 폭죽 쩌는 날씨에도 내 몸을 옥죄는 교복을 입고 기나긴 등교와 학교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방학도 한 달 남짓이라 대부분의 정복 같은 더위를 학교에서 견디기란 쉽지 않았다. 그래도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말이 있지 않겠나, 그 더위조차도 자유로워 보이는 순수함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현재, 미묘한 추억이랄 것도 없는 대학교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방학이 교복을 입었던 시절보다 한 달 반이나 더해진 두 달 반이라는 것이다. 적어도 방학 때만 같은 학교 스키텍이 아닌 내 마음대로 더위를 피할 수 있다. 나의 대학교

생활을 잠시 돌아보면 입학식도 못하고 온라인으로 학교를 다니는 사이버 1 학년을 보냈다. 나의 로망 MT, 파티, 동아리 회의 등은 꿈도 꿀 수 없었다. 한 바이러스에 통제되어 이도 저도 아닌 무의미한 학교생활을 이어갔다. 2학년 때는 블렌디드 수업으로 조금씩 대면 수업이 자리했는데, 나는 이때 전과를 목표로 복수 전공을 잠시 해서 정말 힘들었던 시기였다.

지금은 정말 몰릴 대로 몰려버린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됐지만, 무시할 수 없는 시기이다. 나의 3학년 1학기가 되어서 규제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였다. 길잡이도 하지만 동기들과 하고하면서 나는 아직도 학교 길을 잘 모르겠다며 우스갯소리로 말한다. 그만큼 학교를 많이 체험하지 못한 학년인 것이다. 대학교에서 경험한 최고로 행복했던 순간을 꼽자면 조그맣게 열린 체육대회에서 우리 팀의 베드민턴 응원을 단체로 했을 때, 베드민턴 연습을 함께 했을 때였다. 대학교 감성을 모르는 비윤의 20학년에 계도 약간의 희망이 자리 잡았다.

비윤의 20학년에 계도 예외 없이 여름은 성큼 다가온다. 짜증 나지만 했던 여름이 왜 이번은 반가운지 모르겠다. 더위와 대적하는 내공이 쌓여서 그런가, 더위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오히려 더우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더 무서워해야 한다고 느낀다. 어는 때보다 강렬한 눈빛으로 올 때면 외라 하는 마음이 조금씩 생겨났다. 요즘은 꿈을 찾아 나에게 확신을 가져다

주려는 노력을 많이 한다. 주변 사람들이 왜 뛰라고 할지라도 더 앞으로 나아가면서 말이다. 내 꿈이 전공과 관련된 것이라지만 힘든 과제 늘 속에서도 내 꿈은 누구보다 빛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름을 즐길 것이라 하면서도 여름은 나에게 딱히 반갑지 않다. 땀, 고온 그리고 별래와 함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름을 사계절 안의 장애물로 표현하고 싶다. 인생에도 이러한 장애물이 수없이 존재한다. 장애물을 즐기거나 피한다면 손조롭고 즐거운 인생이 될 것이다. 하지만 언제나 쉬이 피할 수는 없다. 더위를 즐기면서, 그 더위 속에서도 시원함을 즐기려는 태도를 항상 지녀야 한다. 아직은 많이 서툰지만 말이다.

언제부턴가 큰 화면을 커먼 평언이 나오는 여름을 깔았다. 매년 색다른 평언을 볼 때마다 훌륭한 사람들이 매일 내게 연락을 해오는 느낌이다. 이로 인해 내 인생이 조금 더 성장해가는 느낌이 들고 또 그러리라 믿는다. 최근에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은 '쉬운 일은 어려운 듯이, 어려운 일은 쉬운 듯이 하라'이다. 이유는 뜻을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해서 말이다. 쉬운 일을 어렵게 하라는 말은 쉬운 일이라도 겸손하게 임해야 한다는 것이고, 어려운 일을 쉽게 하라는 말은 일이 몸에 익어서 쉽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치열하게 임해야 한다는 말 같기도 하다. 완벽한 문장 해석은 인생의 온갖 여름을 겪고 성장한 미래의 나에게 맡겨 본다.

여름아, 얼마든지 외라!



일단 던지고 봐야 한다

안영진 (방송영상학과·3)

다들 드립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것이다. 흔히 말장난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인다. 나는 이런 드립 치는 걸 정말 좋아한다. 내가 본격적으로 드립을 치기 시작한 것은 중2 때부터였을 것이다. 그때가 2013년이었고 지금은 2022년이나가 언저리로 치면 드립 10년차다.

드립을 치면서 느낀 점들이 몇 가지 있다. 그중 한 가지는, 드립 칠 때 쏠면 안 된다라는 것이다. 드립은 일단 던지고 봐야 한다. 어떤 드립이 터질지는 아무도 모르다. 나는 재밌을 것 같아서 친 드립인데 반응이 시큰둥할 때가 있고, 별 기대 없이 던진 드립인데 그게 반응이 좋을 때가 있다. 일단 던져봐야 하는 건 드립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 살아 가는 데 있어서도, 학교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내 경험상 기회는 뒤로도 던졌을 때 찾아왔다. 그래서 나는 계속 던졌다. 여기서 나의 드립 타올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다. 나는 사실 드립 타올이 그렇게 높지 않다. 100개 던지면 3개 터지는 정도? 터무니없는 수치다. 이런 초라한 기록을 가지고 드립 친다고 말하고 다닐 수 있는 이유는 얼굴에 찰판을 칸 것도 있지만 어찌 됐든 '계속' 드립을치고 있기 때문이다. 드립을 지속적으로 던진 결과, 올해 3월 말에 학교에서 드립 특강을 했다. 와, 안영진이 드립으로 특강을 하는 날이 오다니. 오래 살고 볼 일이다. 내가 드립으로 특강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나. 상상도 못했다.

나는 유튜브로도 드립을 치는 중이다.

[드립 치는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에 일주일에 하나씩 드립 치는 영상을 올린다. 사실 구독자도 많지 않고 조회수도 잘 안 나온다. 조회수는 평균 20~30 정도? 그냥 영상 올리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그런데 그거 아는가? 유튜브에서도 어떤 영상이 터질지 모른다. 나는 평소처럼 드립 치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 제목은 '해군 방송 드립'이었다. 그런데 조회수 올라가는 속도가 평소랑 달랐다. 하루에 10도 안 올라가던 조회수가 100씩 올라가게 시작했다. 와, 이게 심상치 않았다. 조회수는 점점 올라가더니 영상 올린 지 몇 달 만에 만 회를 찍었다. 사실 몇 백만 콘텐츠가 넘겨지는 유튜브 시장에서 만 회 조회수는 터무니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터졌다'라고 하기에 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내 채널 구독자 대비 엄청난 조회수다. 영상을 올릴 당시 86명이었던 구독자 수는 지금 현재 170명까지 늘었다. 모두 해군 방송 드립 영상 덕분이다. 뭐가 터질지 모르던 일단 꾸준히 영상을 올리는 게 답인 것 같다.

공모전 할 때도 계속 던져보는 게 필요하다. 방송영상학과 특성상 공모전에 대해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공모전은 당연히 수상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게 수상 못 할 때가 있고 반대로 수상 못할 것 같은데 수상할 때가 있다. 작년 9월에 학교 형이랑 한옥 공모전에 도전했다. 처음에 특별히 생각나는 기획이 없었다가 한옥에서 랩하는 영상을 찍기로 했다. 그런데 영상을 만들고 나서 보니 그렇게 만족할 만한 퀄리티가 아니었

다. 녹음한 음원 음질도 별로였고, 촬영한 영상본 중에서 초점이 나간 것도 있었다. 일단 출품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학교 형이랑 나는 수상에 대한 기대를 버렸다. 그 후 학교 과제에 치여서 한옥 공모전에 대해서 잠깐 잊고 있었다. 2개월 뒤, 나는 폰에서 습관적으로 메일을 들어갔다가 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한옥 공모전 주최 측에서 우리가 금상 수상했다는 메일이 하나 와있었다. 참고로 대상 바로 아래가 금상이다. 나는 믿기지 않았다. 바로 학교 형한테 연락해서 우리 금상이라고 했더니 형이 구라 치지 말라고 했던 게 생각났다. 학교 형이랑 나는 계속 "아니, 이게 상을 받는다고?" 하면서 의아해했다. 사실 아직까지도 우리가 왜 금상을 받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여기서도 역시 일단 던져봐야 한다는 걸 알 수 있다. 공모전에 참여하는 건 확실히 본인이다. 던져서 수상하면 경력에 남는 거고 수상 못 해도 경력이 되는 거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다. 이걸 단연한 말하면서 무서운 말이기도 하다. 나는 이 말을 어떻게 바꾸고 싶다. '아무것도 던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내 머릿속에는 아직 던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다. 다르게 말하면 학교 형이랑 한옥 공모전에 도전했다. 처음에 특별히 생각나는 기획이 없었다가 한옥에서 랩하는 영상을 찍기로 했다. 그런데 영상을 만들고 나서 보니 그렇게 만족할 만한 퀄리티가 아니었

이달의 명언

여름밤은 마치 생각의 완성 같다 -윌레스 스티븐스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속은 영원한 여름이리라 -셸리야 맥스터

여름에는 노래가 적로 나온다 -윌리엄 카롤로스

목회 칼럼



황정환 목회

미국 남침례 교단의 대표적인 목회자였던 웨인 오즈는 "힘이 없는 삶은 탐욕이라는 주요 기제가 가져다주는 불가피한 부산물"이라면서 통찰력 있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오즈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주신 삶에 대해 감사하기보다는 더 많이 벌기 위해, 더 빨리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현대인의 삶의 뿌리에 탐심과 욕심이 자리 잡고 있다고 잘 지적했습니다. 오즈의 주장처럼 우리 모두의 삶에 힘

안식은 멈춤(Ceasing)

일을 돌아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1:10)

"안식의 멈춤"은 돌아보기 위험입니다. 하나님이 멈추시고 안식하신 것은 돌아보시기 위험입니다. 하루 동안 살아있는 삶의 자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것이 좋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시며 하루의 행적을 돌아보신 것입니다.

현대인은 미래의 성과와 업적을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멈춤이 필요합니다. 멈춰서 자신의 삶의 자리(Sitz im Leben)를 돌아봐야 합니다. 자동차로 길을 가던 주변의 아름다움을 자세히 보지 못하지만, 천천히 걸어들어갈 때는 마주하는 그 모든 사물과 존재를 자체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우리는 질주하는 것보다 멈춤으로 삶의 소중한 것들을 바라보고, 가족, 친구 등, 과거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하면서 올바른 방향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하루의 안식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매일 반복됩니다. 안식은 과거를 보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다음의 삶을 위한 준비입니다.

안식의 멈춤은 방향을 다시 잡아줍니다. 멈출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은혜 중의 은혜는 깨달음에 있습니다. 진정한 멈춤은 마음을 깨달음에 있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진짜로 멈추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시49:20)

멈출 때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돌아본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면 교만한 삶이 아니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를

올바로 사용하는 삶의 방법을 간구하고, 주님의 인도를 바라고 찾습니다. 안식의 멈춤은 우리가 타락의 자리로 가지 못하게 하며 방향을 다시 수정하게 합니다.

안식은 인간에게는 너무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안식은 육신의 힘을 말하기도 하지만 육신의 힘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반성하게 하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수정하여서 부끄럽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감과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자신과 이웃을 복되게 하는 '삶의 축복'입니다. 또한 안식은 누군가에게는 아주 유익한 순간들로 다음을 준비하는 발판이 되기도 하며, 누군가는 무의미한 시간으로 낭비해 버리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좌절하고 낙심하며 인생의 여정의 종착점으로 여기고 종말로 치닫는 수도 있습니다.

안식하는 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주저함을 알고 쉬는 시간을 즉 멈춰버린 시기의 시간들을 아주 유익하고 특별한 시간들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네컷만화

여름



181호를 마지막으로 동서신문화 연재를 끝맺음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 민화를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사설

지구는 일회용이 아니다

재활용 선별장에는 하루에만 1500톤가량의 재활용 쓰레기가 모인다. 하지만 쓰고 버리기 쉬운 일회용품은 과연 '처리' 하는 것도 간편할까?

먼저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작업자의 손에 걸리는데, 재활용 불가능한 쓰레기도 상당수를 차지한다. 제대로 세척되지 않았거나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의 경우가 그렇다. 이런 쓰레기의 경우 그대로 소각된다.

실제로 한국의 재활용 수거율은 세계 2위를 자랑하지만, 재활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한 방울의 물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플라스틱은 종량제로 간다. 빨대처럼 작은 것들은 재활용도 안 된다. 실링 스티커가 살짝 남은 플라스틱도 전부 종량제로 간다. 내가 버리려고 했던 재활용 플라스틱의 절반이 그냥 일반 쓰레기가 된다.

최근에는 일회용품 사용을 지양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소비와 트렌드의 주축인 젊은 세대들을 보면 친환경, 친소재, 생분해 등의 제품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많은 기업들도 친환경 제품을 추구하는 행동을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재활용이아말로 '양산적인 쓰

레기 생산'의 주범이라고 생각한다. 올인원 고체 비누처럼 발생하는 쓰레기가 아예 제로인 제품에 비해 재활용 가능 제품은 아무튼 쓰레기를 생산한다.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친절함 삼각 마크 뒤에 숨어 그 사실을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이다. 그 작은 삼각 마크는 신기하게도 소비자의 죄책감을 덜어 준다.

또 재활용이라는 것은 일반 소비자에게 환경 파괴의 책임을 떠넘긴다. 정작 쓰레기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마케팅'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더 화려해지기만 했을 뿐인 쓰레기를 계속해서 찍어낸다. 화려한 쓰레기를 판매하며 돈을 벌고, 책임은 교묘하게 감춰 우리를 바로로 만든다. 제대로 세척하지 않은 빨대를 버린다는가, 종이 빨대 대신 플라스틱 빨대를 선호하는 등의 개인의 사소한 행동이 쓰레기와 환경 문제의 주요 원인이라고 말하면서 말이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스피라시'를 보면, 바닷속 플라스틱 중 일회용 빨대는 겨우 0.03%이고, 절반 이상이 어업용 그물이라고 한다.

카트리 하르트만은 <워킹환경주의>에서 '지속 가능한 마케팅'을 실천하는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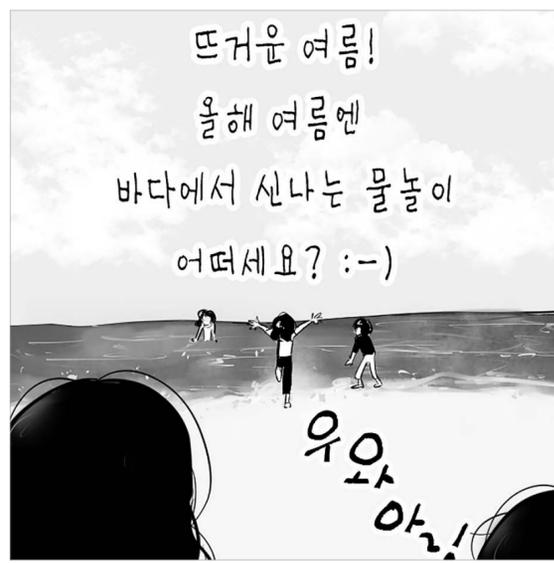
업들에 대해 얘기한다. 예를 들어 아디다스는 바다에서 건져낸 플라스틱으로 운동화를 만드는데, 이 운동화는 고작 0.5%를 차지한다. 스타벅스는 종이 빨대 등 저가 매출에는 큰 타격이 오지 않을 선에서 친환경 마케팅을 실천하면서, 매 시즌마다 '리유저블' 같은 이름을 붙인 플라스틱 MD 상품을 찍어낸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소비자가 플라스틱을 쓴다고 눈치를 보게 만들거나,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 대해 연구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만드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기업 만든다 쓰레기의 발톱의 때 수준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친환경적 행동, 운동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객관적 또는 수치적으로는 그게 맞지만, 신념을 가진 행동이 모여 하나의 트렌드가 되는 것이 포인트 아닐까. 소비자의 작은 움직임을 신경 쓰고 기업이 이를 의식해 마케팅 흐름을 바꾸게 하는 것. 그것이 플라스틱 아예 안 쓰기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동서만평

글·그림 정희진



■ 학생 인터뷰 - 광고홍보학과 강소연 학생

■ 학생 인터뷰 - 영어학과 김지연 학생

광고로 기업을 놀라게 하다

Q college 학생들의 UN프로젝트!

고래사도 놀란, 'Oh My Goraesa'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이야기하다



▶ 광고홍보학과 2학년 강소연



▶ 공모전 수상 작품



▶ UN프로젝트 발표자 5명 (서유진, 김지연, 이주영, 양운정, 윤하나)



▶ 영어학과 김지연 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열리는 고래사어목 공모전에 본교 광고홍보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강소연 학생이 수상을 하였다. 자신의 전공을 살리면서 학교를 빛낸 자랑스러운 학생인 강소연 학생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Q. 인터뷰 요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동서대학교 광고홍보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강소연입니다.

Q. 광고홍보학과에 진학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 실린 이색 광고인의 '누군가에게는 이 계단이 에베레스트 산입니다'라는 기발한 공익광고를 본 후 광고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다양한 광고를 찾아보면서 직접 광고를 기획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광고기획자를 목표로 관련 정보 및 경험을 얻고자 광고홍보학과에 진학하였습니다.

Q. 어떤 계기를 통해서 고래사 어목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나요?

A. 부산연합광고동아리 (PAM)에서 활동하다가 고래사 어목 공모전을 알게 되어 동아리 소속 일원분들과 팀을 이뤄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고래사 어목이 부산의 유명한 프리미엄 어목 브랜드인 만큼 해당 공모전에 참여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제가 기존에 즐겨 찾던 브랜드여서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공모전에 참여하였습니다.

Q. 공모전 준비 당시 힘들었던 일은 없었나요?

A. 기획서에 들어갈 아이디어를 구현해 내기 위해 이틀에 걸쳐 부산 내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며 배우로 영상 촬영에 참여했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 촬영이 길어져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외부 촬영을 위해 시간에 쫓기며 마땅한 장소를 찾아 돌아다닌 점 역시 힘들었습니다.

제출 마지막 날에는 다 같이 모여 밤샘 작업을 하기도 했는데 수상을 한 지금 돌아보면 그때 힘들어도 열정을 다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Q. 수상하신 작품들을 보면 재치있는 멘트와 귀여운 표정이 돋보이는데 이런 아이디어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나올 수 있었나요?

A. 공모전을 준비하는 한 달 동안 대략 15번 이상 회의를 했고 다같이 모여 카페에서 머리를 맞대고 하루종일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를 빌려 포스터, 영상을 촬영했고 편집 및 이미지 제작 등을 통해 아이디어의 퀄리티를 높였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였기에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Q. 같이 공모전을 준비했던 팀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A. 함께 고래사 어목 공모전을 준비한 언니, 오빠들에게 너무 고생하셨다고 말하고 싶고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보고 배운 것들이 많아 너무 의미 있었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견을 조율해 나가며 더 좋은 아이디어로 디벨롭될 수 있게 다 같이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

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Q. 학교에서 배운 수업이 본 대회에서는 수상을 수상하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A. 1학년 때 배운 광고론, 마케팅론 등 전공 수업을 통해 광고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 지식을 쌓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아이디어 설명 시 적절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팀플을 통한 광고 과제 발표 등을 연습해 왔기 때문에 이번 공모전에서 팀플을 진행할 때에도 의견 조율 및 기발한 아이디어 제시 등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Q. 광고 홍보 공모전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광고홍보학과는 취업을 위해 본인을 내세울 수 있는 스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스펙 중 가장 큰 강점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모전 수상입니다. 공모전은 링크리어 같은 공모전 정보를 알려주는 앱을 이용해서 찾아보고, 스펙 한 줄에 적절할만한 가치 있는 공모전을 선택해 최선을 다해 도전해 보세요. 내일의 나를 위해 애쓰고 있는 '광홍아'들. 광고 업계를 희망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Q.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 광고홍보학과를 다니면서 기획뿐만 아니라 제작까지 할 수 있는 만능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도비를 이용하는 제작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내 공모전뿐만 아니라 해외의 공모전에서도 수상해서 원하는 곳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김선희 수습기자

Q college 학생들이 미국의 세인트 매리 대학에서 공부하며 유엔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참여하고 유엔 사무관들을 대상으로 직접 발표하는 기회를 가졌다. 발표자 학생들의 대표 학생인 김지연 학생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Q.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Q college UN project에서 팀장을 맡았던 동서대학교 영어학과 3학년 김지연입니다.

Q. SAP 글로벌 UN프로젝트는 어떤 것인가?

A. Q college 소속 학생 10명이 SAP 글로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 세인트 매리 대학교에서 준비한 프로젝트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UN에서 지정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해당 주제에 대해 학습하며 미국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이루고 실천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구성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Q. 어떤 계기로 참여하게 됐나요?

A. UN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는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중 제가 생각만 하고 있었던 아이디어를 직접 UN이라는 국제기구에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망설임 없이 참여했습니다.

Q. 그렇다면 프로젝트에서 어떤 주제를 발표하셨나요?

A. 최근에 저는 중고 물품의 사용이 환

경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중고물품을 팔고 사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며 두고 가야했던 낫정한 물품들을 기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학생이던 저는 교통과 택배 이용 등의 제약이 있어 마땅한 기부처를 찾지 못해 고민이었습니다.

이번 고민을 바탕으로 발표한 아이디어는 저와 같은 국제학생이나 단기간으로 기숙사에 머무는 학생들이 중고 물품을 필요한 학생에게 기부하거나 판매하는 조직을 세우는 것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지구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Q. 발표는 어떤 과정으로 준비했나요?

A. UN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 모두가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낫선 타국에서 서로를 도우며 학교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며 UN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발표하기 위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그 후 선발 과정을 통해 총 5명이 최종적으로 발표했습니다.

Q. 준비 과정 중 힘든 점은 없었나요?

A. 프로젝트 준비 중에 힘들었던 점은 아이디어 구성 부분이었습니다. 'Phoenix of life'라는 단어가 속해 교수의 도움과 지원을 받으며 팀을 이끌기 위해 지속적인 가능한 목표 특강과 대회에서의 원활한 발표를 위한 교육과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Q. 발표가 끝나고 어떤 점을 느꼈나요?

A. 지속 가능한 개발은 누군가를 위한

목표가 아닌, 우리 모두가 더 잘 살기위한 목표이며 한 사람이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가 먼저 실행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Q. 발표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세인트 매리 대학에서 공부하며 준비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A. 저희는 수업료와 기숙사비 항공료 등 경비를 지원 받기 때문에 좋은 조건에서 잘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이곳에서 공부하며 미국의 대학교 수업과 한국 대학교 수업의 차이가 인상 깊었습니다.

미국 대학교 수업은 학생들의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서 당답아 열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대학 생활이 낯선 곳에서 공부한다는 힘든 점도 있었지만 그렇기에 더욱 새로운 경험이고 그것은 경험을 통해서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진취적인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Q. 다음 Q college 학생들을 위해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A. 1기 학생으로서 처음 방문하는 학교에서 생활하며 경험한 예로 사탕이나 느린 점 등을 2기 학생들을 위해 Q college 학생님께 많은 피드백을 드렸고 충분히 반영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없이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자신만의 '부캐'를 위해 Q college에 참여하고 신청하는 도전하는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도엽 수습기자

성경 속 음식이야기

'생명의 나무' 종려나무

종려나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무엇인가?라며 생소하다는 듯이 반응할 것이다. 과연 이 종려나무가 우리에게 생소한 나무일까? 사실 종려나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추야자이다.

대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열매이다. 성경 속에서 종려나무라고 칭하는 것들의 전부는 사실 이 대추야자를 말하는 것이다. 대추야자가 가장 무성한 곳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이다.

그렇다면 과연 언제부터 이 대추야자가 생명의 나무로 불리기 시작했을까? 대추야자가 본격적으로 생명의 나무라고 불리기 시작한 건 서부 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지역의 고대인들을 먹여살리기 시작했을 때부터였다.

이 대추야자는 영양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열매들과는 달리 뜨거운 여름날인 7~8월에 수확한 후 특별한 장치 없이도 2~3년 동안 보관할 수 있는 만큼의 저장성도 뛰어나다. 또한, 대추야자의 열매는 꿀로 생각할 만큼 아주 달달한 좋은 맛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대추야자가 전 세계 1/3을 차지하는 이라크에서는 이 열매즙으로 빵을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 술을 만들기도 한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성경에서 언급돼 나오는 대추야자 즉, 종려나무의 일화로 가장 유명한 일화를 소개해 보겠다. 성경에서 종려나무의 가지는 건초로도 이용하고, 열매는 식물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다. 종려나무의 가지가 끊고 수려하게 뻗은 아름다운 외형 때문인지는 몰라도 '기쁨과 승리와 부활'을 상징하여 개선하는 전쟁 영웅들을 환영하는 행사가 많이 사용됐다. 이런 상징성 때문에 인지는 몰라도 종려나무의 가지는 성경 속 이야기에서 자주 대표적이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고 호산나 찬송하리라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요12:13)

뜻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나와 열렬하게 환호성을 외쳤다. 아마도 그들은 여기에서 기쁨과 승리와 부활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쥐어 외쳐 감람산의 벤훁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했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많은 나뭇가지 가운데 특별히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흔든 것일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

지 종려나무가 기쁨과 승리와 부활의 상징이기 때문에 흔든 것이 아니다. 고대부터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식물이었다. 종려나무의 식물학 이름은 'Phoenix'이다. 'Phoenix'가 불어 있는 것이 재미있지 않은가? 종려나무는 다 베고 남은 그루터기를 불에 태우고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자란다. 불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불사조라 불릴 만하지 않은가? 정말이지 종려나무의 생명력은 경이로울 정도이다.

이런 종려나무의 특징 때문에 종려나무는 기쁨과 승리와 부활을 상징하는 나무가 됐다. 종려나무는 로마의 압제를 받으며 로마에 대한 유대인들의 민족주의를 대 표하는 나무가 됐다. 당시 로마가 세운 헤롯 가계의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불에 탄 종려나무 그루터기 같았다.

그러나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가 세계 최강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수많은 순례객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신들의 걸음을 예수님 앞에 깔았다. 이는 예수가 앞장서서 꺾기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무언의 표현이었다. 우리의 일제 식민지 시절,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던 상황을 떠오르게 만든다.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국기 대신 그들에게

는 종려나무 가지가 있었던 것이다.

또 성경 속 대추야자의 대표적인 일화로는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민14:8)'이 있다. 이 표현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바로 살과 꿀이다. 성경에서는 벌꿀을 뜻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 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과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신8:7-8)

이 말씀에는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식물들이 나온다. 마지막에 꿀을 넣고 유대인들의 해석은 꿀은 종려나무 열매인 대추야자로 만든 식물을 의미한다. 대추야자는 영어로 'date'라고 하며, 대추야자를 썰어서 만든 대추야자 꿀을 'date honey'라고 한다. 고대부터 유대인들은 대추야자 꿀을 즐겨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대로 와서 고대 유대인들과 우리는 다르지 않다. 방법은 다르지만 우리도 대추야자를 먹고, 대추로 만든 꿀을 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성경 속 대추야자인 종려나무를 보면서 대추야자의 과거를 알 수 있다.

자료 출처 : 지식백과-세상을 바꾼 나무 도서-올리다 성경(시물 이야기) 이나영 수습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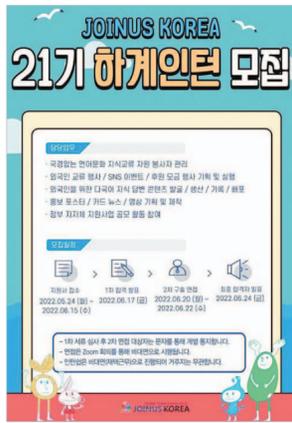
▶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스라엘 백성들

▷ 사진 출처 : BHCe 연구소 블로그

참여하면 유익한 '대외활동·공모전' 소개



■ 대학생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 접수기간: ~2022.06.14. (화)
 • 응모대상: 대학생
 • 공모분야: 창업, 기획/아이디어



■ JOINUS KOREA 21기 하계인턴 모집
 • 접수기간: ~2022.06.15. (수)
 • 응모대상: 대학생
 • 공모분야: 인턴십/봉사



■ 낙동강유역환경청 브랜드 및 정책 홍보 영상콘텐츠 공모전
 • 접수기간: ~2022.06.17. (금)
 • 응모대상: 대학생/일반인
 • 공모분야: 사진, 영상/기획, 아이디어



■ 제10회 전국 대학생 앱 개발 챌린지 K-해커톤
 • 접수기간: ~2022.06.17. (금)
 • 응모대상: 대학생
 • 공모분야: 기획, 아이디어



■ 2022 식의약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 접수기간: ~2022.06.19. (일)
 • 응모대상: 제한 없음
 • 공모분야: 과학, 공학/기획, 아이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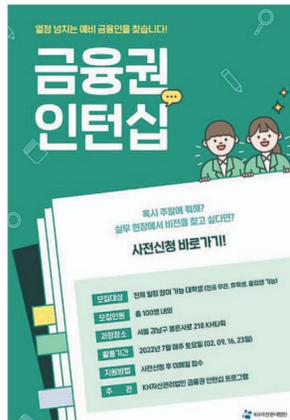
■ KIMA WEEK 2022 서포터즈
 • 접수기간: ~2022.06.19. (일)
 • 응모대상: 대학생/일반인
 • 공모분야: 서포터즈/대외활동



■ 대학생 인플루언서 '디플' 24기
 • 접수기간: ~2022.06.19. (일)
 • 응모대상: 대학생
 • 공모분야: 서포터즈/과학, 공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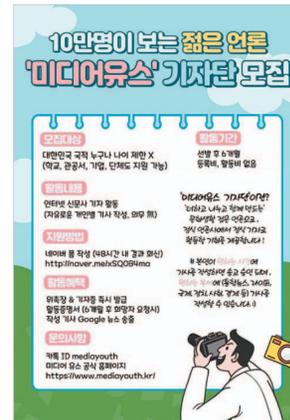
■ 2022년 상반기 통계데이터센터 이용·활용 후기 공모전
 • 접수기간: ~2022.06.20. (월)
 • 응모대상: 제한 없음
 • 공모분야: 문학, 시나리오/과학, 공학



■ 금융권 인턴십 5기 모집
 • 접수기간: ~2022.06.20. (월)
 • 응모대상: 대학생/일반인
 • 공모분야: 인턴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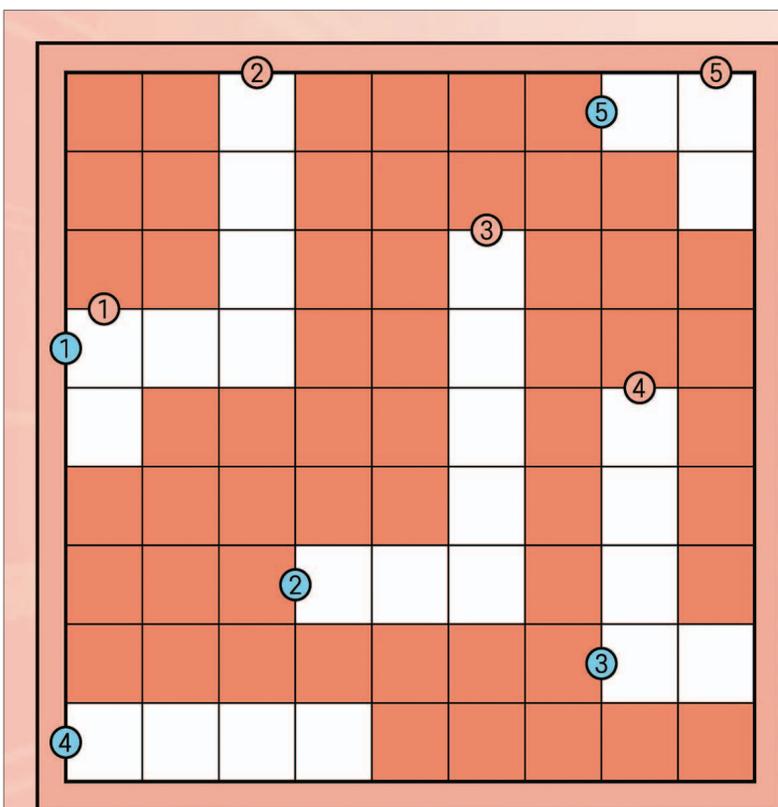
■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 기술 시각화 경진대회
 • 접수기간: ~2022.06.26. (일)
 • 응모대상: 제한 없음
 • 공모분야: 과학, 공학



■ 미디어우스 기자단 모집
 • 접수기간: ~2022.06.30. (목)
 • 응모대상: 제한 없음
 • 공모분야: 언론, 미디어



■ 2022 제1기 뉴스더원 시민기자단 모집
 • 접수기간: ~2022.06.30. (목)
 • 응모대상: 대학생/일반인
 • 공모분야: 언론, 미디어



- DSU NEWSPAPER - 맞춰봐요 날말퍼즐

- | | |
|---|--|
| 가로 | 참여방법 |
| ① 주로 피거나 휴학을 위한 휴가를 뜻하는 프랑스어
②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햇빛에 그늘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른 크림
③ 여름철에 여러 날을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현상이나 날씨
④ 물놀이를 즐기거나 휴학할 수 있도록, 물놀이 기구 및 제반 시설을 대규모로 갖춘 곳
⑤ 얼음을 잘게 갈아 눈과 같이 만들고 설탕, 향리로 따위를 넣은 음식 | ① 날말퍼즐을 잘라 산학협력관 대강당 입구에 있는 신문사 건의함에 넣어주세요
② 정답이 잘 보이게 사진을 찍어 아래의 번호로 보내주세요!
편집국장: 010-4915-8702 |
| 세로 | 6월 29일까지 날말퍼즐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당첨자는 6월 30일에 개별 통보합니다.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
| ① 지구 위에서 육지를 제외한 부분으로, 지구의 약 70%를 차지하는 것
② 강한 햇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쓰는 것
③ 우유, 달걀, 향료, 설탕을 넣어 크림 상태로 열린 것
④ 해수욕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시설이 갖추어진 바닷가
⑤ 스포츠나 놀이로서 물속을 헤엄치는 일 | * 학 과:
* 학 년:
* 이 름:
* 연락처: |